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장광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I. 서론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의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박사급 고급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의 수요는 타 직종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수는 2020년 548만 명, 2025년 591만 2,000명, 2030년 608만 9,000명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¹⁾

표 1. 취업자 수 전망(직업 대분류)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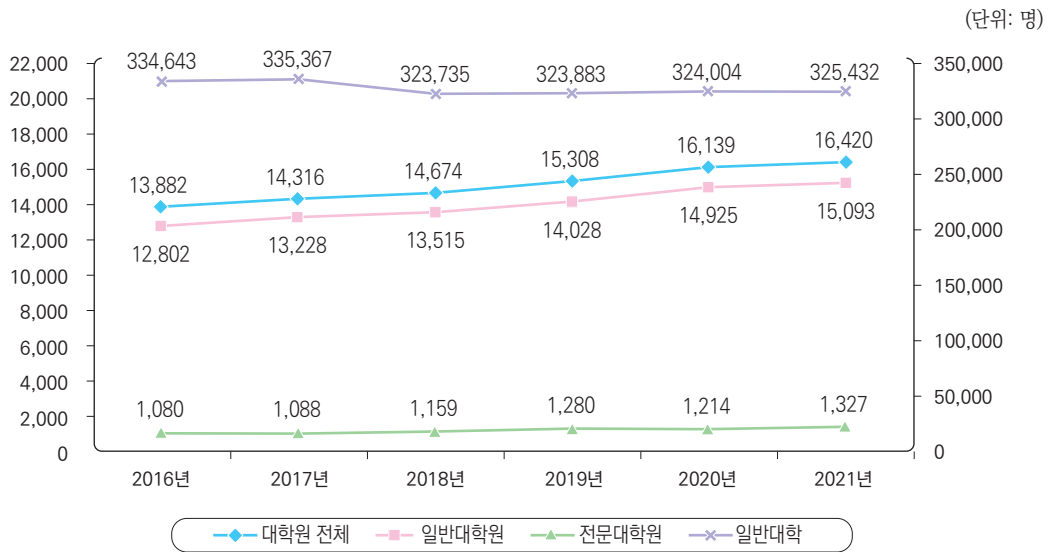
구분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수			취업자 증가율(연평균)		
	2020년	2025년	2030년	2020~2025년	2025~2030년	2020~2030년	2020~2025년	2025~2030년	2020~2030년
전 직업	26,904	27,995	27,888	1,091	-107	984	0.8	-0.1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480	5,912	6,089	431	177	609	1.5	0.6	1.1

출처: 고용노동부(2022).

1) 고용노동부(2022).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2021년 기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총 1만 6,42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8%이고, 전년 대비로는 약 1.7% 증가하였음.²⁾
- 국내 대학 졸업자 대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은 R&D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표 2〉 참고).

그림 1. 연도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2016~2021년)



주: 1)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전문·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의 전문·특수대학원이 포함됨.
 2) 학위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 학위 취득자를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2016~2021년).

표 2. 연도별 학위 취득자 수 변화(2016~2021년)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사(A)	334,643	335,367	323,735	323,883	324,004	325,432

〈표 계속〉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2016~2021).

박사(B)	13,882	14,316	14,674	15,308	16,139	16,420
비중(B/A*100%)	4.15	4.27	4.53	4.73	4.98	5.05

주: 학위 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 학위 취득자를 포함함.
출처: 고용노동부(2022).

- 박사급 인력 정책의 통계 인프라 구축 및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박사급 고급인력의 특성과 노동시장 이행 현황 분석은 향후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풍부한 시사점 도출과 이에 맞는 정책 제언을 위해서도 필요함.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인적 특성 변화

- 분석 자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로 취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수행하고 있는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이하 박사조사)」를 사용하였음.
 - 박사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교육부의 공동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호)로서,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 연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조사를 시행함.
 - 2012년부터 매년 수행되어 온 본 조사는 박사 인력의 규모, 학위 과정과 연구 성과, 노동시장 이행 현황에 관한 장기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개인 특성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파악하기에 알맞음.
- 이하 통계 분석에서는 박사조사의 2016~2021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박사학위 취득자의 개인 특성 변화 및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살펴봄.
 - 단,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학업전년 박사학위 취득자’와 ‘직장병행 박사학위 취득자’ 간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노동시장 이행 분석에서는 '학업전년 박사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3. 박사조사 관측치(2016~2021년)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관측치	8,705	9,180	8,810	9,434	10,343	11,156
박사학위 취득자	13,882	14,316	14,674	15,308	16,139	16,420

주: 학위 취득자는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 학위 취득자를 포함함.

출처: 고용노동부(202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개인 특성에 따른 최근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직장병행 여부) 2020년 직장병행자의 비중이 50%를 넘은 이후, 2021년에도 53.5%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는 등, 최근 직장병행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는 2016년 34.1%에서 2021년 3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4. 직장병행 여부, 성별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2016~2021년)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장병행 여부	학업전년	4,491 (52.2)	4,764 (52.2)	4,640 (52.9)	4,811 (51.3)	4,535 (44.0)	5,171 (46.5)
	직장병행	4,106 (47.8)	4,358 (47.8)	4,139 (47.2)	4,570 (48.7)	5,780 (56.0)	5,957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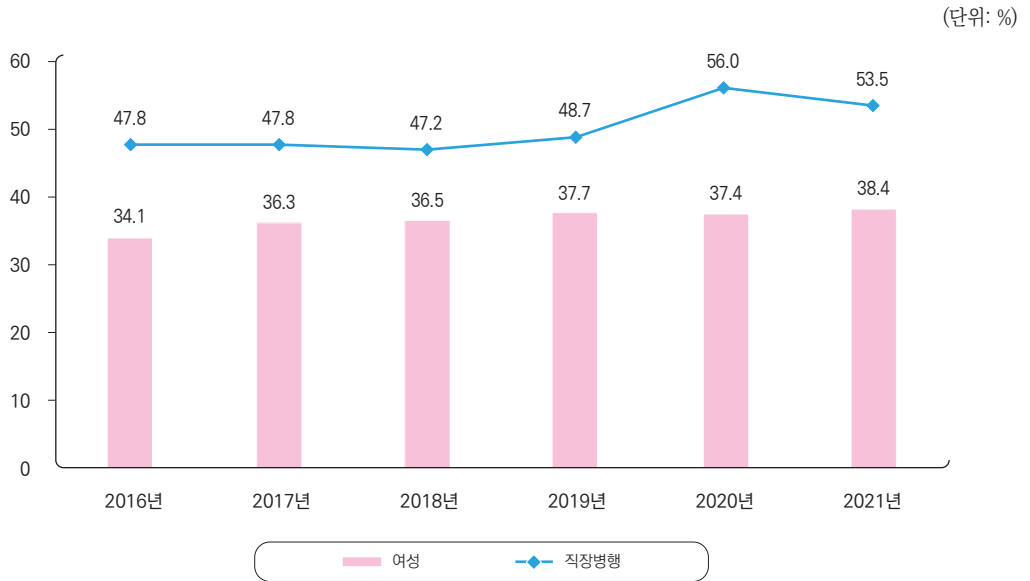
〈표 계속〉

성별	남성	5,738 (65.9)	5,844 (63.7)	5,592 (63.5)	5,876 (62.3)	6,479 (62.6)	6,875 (61.6)
	여성	2,967 (34.1)	3,334 (36.3)	3,214 (36.5)	3,557 (37.7)	3,864 (37.4)	4,281 (38.4)

주: 괄호 안은 비율(%)이며, 무응답자는 제외함.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직장병행,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 변화(201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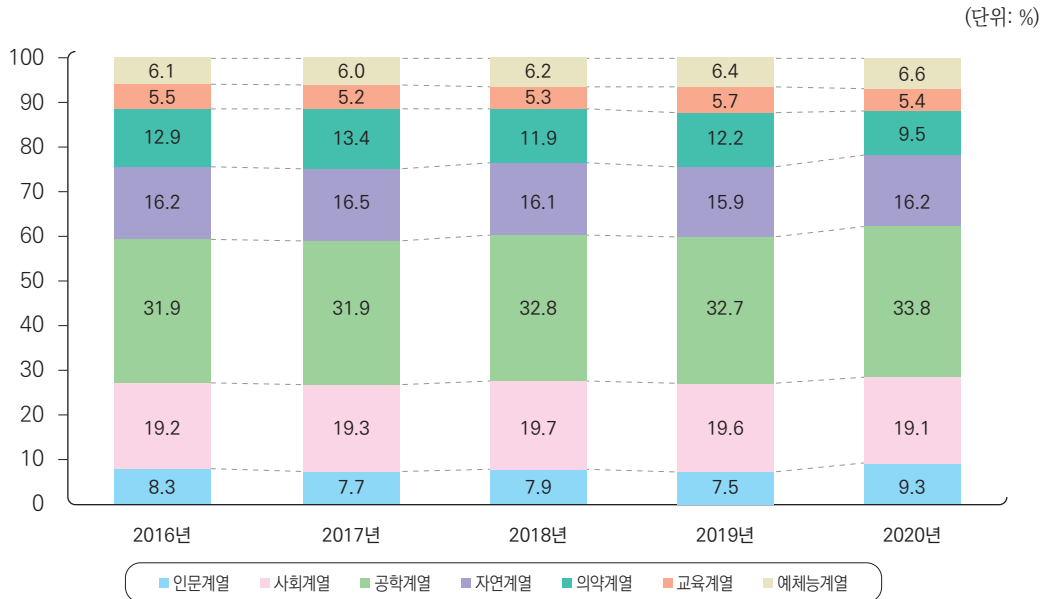


주: 무응답자 제외.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공계열별) 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³⁾

그림 3. 전공계열별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중 변화(2016~2020년)



주: 무응답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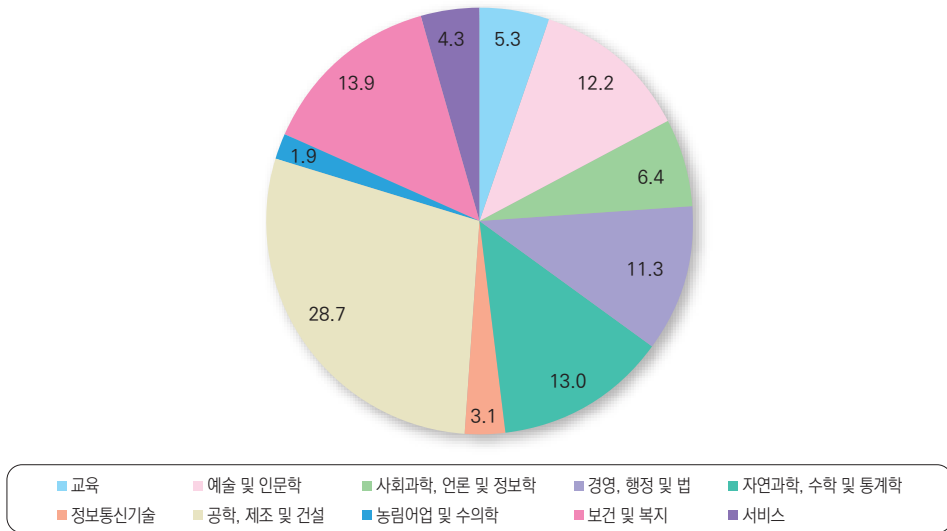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0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공계열별, 2021년) 2021년도 한국표준교육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학 · 제조 · 건설 계열, 보건 · 복지 계열, 자연과학 · 수학 · 통계학 계열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3) 단, 2016년부터 2020년 조사 결과에 해당하며, 2021년도는 한국표준교육분류 대분류(10개 분류) 기준으로 변경된 조사표로 조사됨에 따라 별도로 결과를 제시함.

그림 4.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계열별 구성(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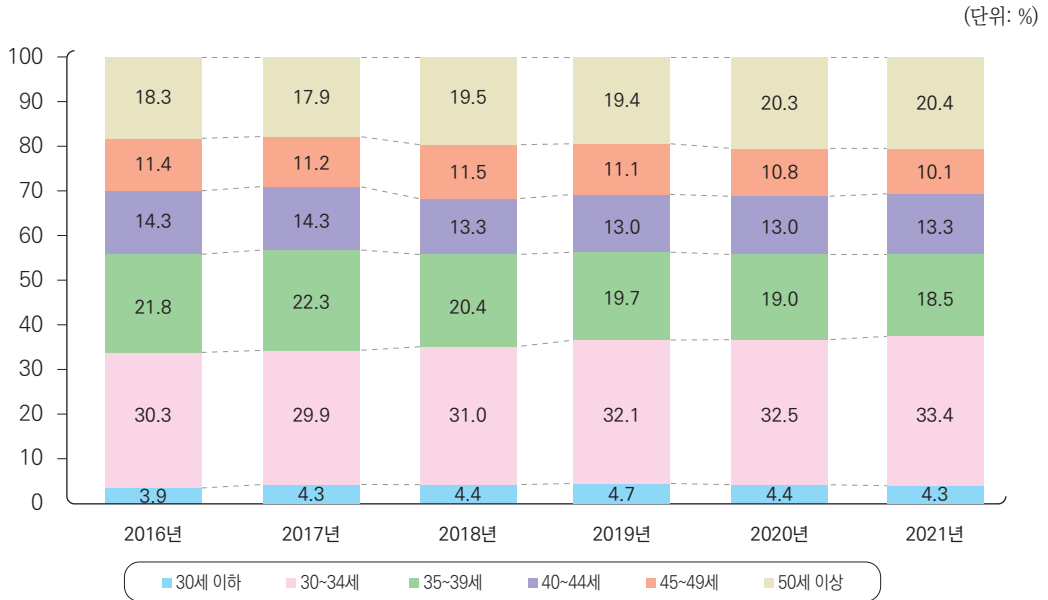
주: 무응답자 제외.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연령대별) 5세 단위의 연령대별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을 살펴보면, 30~34세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2021년 기준 33.4%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으며, 그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50세 이상 취득자의 비율 역시 2016년 18.3% 대비 2021년 20.4%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임.

그림 5. 연령대별 박사학위 취득자의 변화(2016~2021년)



주: 무응답자 제외.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학원 소재지별)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청권에서 전국 대비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충청권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남권과 대경권은 연도에 따라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7% 내외, 강원권은 2% 내외임.

표 5. 권역별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변화(2016~2021년)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도권	4,885 (56.1)	5,044 (55.0)	4,599 (52.2)	4,986 (52.9)	5,398 (52.2)	5,915 (53.0)
비수도권	3,820 (43.9)	4,136 (42.1)	4,211 (47.8)	4,448 (47.2)	4,945 (47.8)	5,241 (47.0)
동남권	866 (10.0)	836 (9.1)	896 (10.2)	971 (10.3)	1,078 (10.4)	1,113 (10.0)
대경권	753 (8.7)	956 (10.4)	972 (11.0)	912 (9.7)	1,076 (10.4)	999 (9.0)
호남권	659 (7.6)	633 (6.9)	653 (7.4)	671 (7.1)	648 (6.3)	917 (8.2)
충청권	1,280 (14.7)	1,393 (15.2)	1,434 (16.3)	1,622 (17.2)	1,891 (18.3)	1,901 (17.0)
강원권	210 (2.4)	251 (2.7)	198 (2.3)	206 (2.2)	178 (1.7)	218 (2.0)
제주권	52 (0.6)	67 (0.7)	58 (0.7)	66 (0.7)	74 (0.7)	93 (0.8)

주: 1) 괄호 안은 비율(%)이며, 무응답자는 제외함.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를(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Ⅲ. 신규 박사인력의 노동시장 이행

□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학업전념자와 직장병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진로확정비율) 진로확정비율⁴⁾이 2016년 75.5%에서 2021년 70.1%로 감소하는 등 전반

4) 진로확정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조사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상태(박사후연구원 혹은 시간강사로 확정된 자를 포함)에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직장병행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90% 내외의 진로확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진로확정비율이 2016년 60.8%에서 2021년 47.3%로 감소하였음.
-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확정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음.

표 6.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확정비율 변화(2016~2021년)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진로확정자	6,368 (75.5)	6,721 (74.3)	6,430 (74.0)	6,579 (70.6)	7,165 (69.5)	7,778 (70.1)
학업전념자	2,664 (60.8)	2,794 (59.5)	2,723 (59.8)	2,508 (52.8)	1,911 (42.3)	2,430 (47.3)
직장병행자	3,661 (91.5)	3,904 (90.3)	3,694 (89.9)	4,052 (89.6)	5,241 (90.8)	5,341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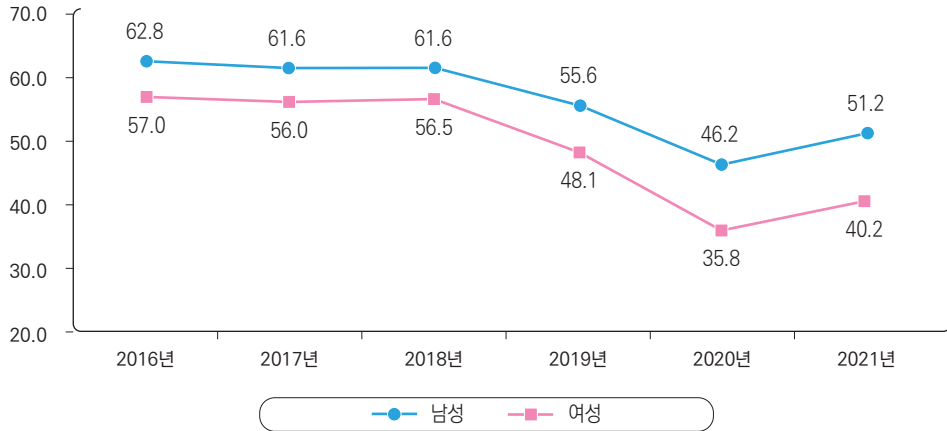
주: 1) 진로확정자는 박사 취득 시점에 재직 및 취업 확정, 박사후연구원 또는 시간강사로의 진로로 확정된 자를 의미함.
 2) 괄호 안 수치는 진로확정자 비율(%)이며, 결측치 및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관측치 수와 개인 특성별 관측치 수의 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학업전념자의 진로확정비율을 개인 특성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여성과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확정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학업전념 박사의 진로확정비율은 2016년 57.0%, 2018년 56.5%에서 2021년 40.2%로 16.8%p 감소하여, 동 기간(2016~2021년) 남성의 진로확정비율 감소 폭(11.6%p)보다 컸음.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확정비율 감소가 공학·자연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와 대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음.

그림 6. 성별 학업전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확정비율 변화(2016~2021년)

(단위: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전공계열별 학업전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확정비율 변화(2016~2020년)

(단위: %, %p)

구분 \ 연도	2016년(A)	2017년	2018년(B)	2019년	2020년(C)	차이(B-A)	차이(C-B)
인문계열	58.1	53.3	55.4	44.5	26.4	-2.7	-29.0
사회계열	53.3	51.2	53.1	42.0	29.6	-0.2	-23.5
공학계열	63.1	62.4	61.7	56.1	46.7	-1.4	-15.0
자연계열	60.0	58.2	58.7	54.1	45.0	-1.3	-13.7
의약계열	63.1	66.2	66.0	56.4	48.6	2.9	-17.4
교육계열	57.8	58.4	61.0	48.9	39.3	3.2	-21.7
예체능계열	61.7	57.3	57.1	47.5	38.5	-4.6	-18.6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0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종사상 지위) 2018년을 기점으로 학업전년 박사의 전체 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감소가 나타남.

- 학업전년 박사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2018년 55.4%에서 2021년 61.6%로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18년 3.4%에서 2021년 2.1%로 감소하였음.

- 직장병행 박사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조사 기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표 8.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6~2021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업전년		전체	2,482	2,658	2,624	2,415
학업전년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387 (55.9)	1,506 (56.7)	1,454 (55.4)	1,438 (59.5)	1,241 (65.7)	1,488 (61.6)
		임시근로자	1,008 (40.6)	1,052 (39.6)	1,053 (40.1)	896 (37.1)	589 (31.2)	858 (35.5)
		일용근로자	31 (1.2)	33 (1.2)	29 (1.1)	15 (0.6)	10 (0.5)	19 (0.8)
	비임금근로자 (2.3)		56 (2.5)	67 (3.4)	88 (2.7)	66 (2.6)	49 (2.1)	51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장병행		전체	3,631	3,849	3,611	4,003
직장병행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2,654 (73.1)	2,803 (72.8)	2,612 (72.3)	2,903 (72.5)	3,664 (70.0)	3,903 (73.3)
		임시근로자	330 (9.1)	394 (10.2)	351 (9.7)	420 (10.5)	763 (14.6)	554 (10.4)
		일용근로자	15 (0.4)	16 (0.4)	13 (0.4)	24 (0.6)	26 (0.5)	25 (0.5)
	비임금근로자		632 (17.4)	636 (16.5)	635 (17.6)	656 (16.4)	780 (14.9)	844 (15.9)

주: 괄호 안은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결측치(무응답)는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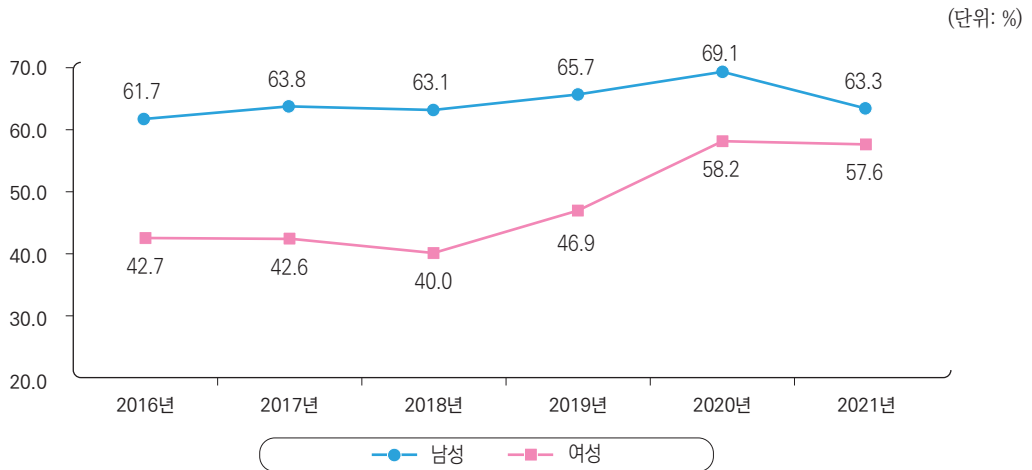
○ 학업전년자의 상용근로자 비율을 개인 특성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여성과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학업전년 박사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2018년 40.0%에서 2021년 57.6%로 큰 폭(17.6%p)으로 증가함.

조사 · 통계 브리프

- 동 기간(2018~2021년) 남성 학업전념 박사의 상용근로자 비율과의 차이도 2018년 23.1%p에서 2021년 5.7%p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적임.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가 공학·자연계열 대비 더 크게 나타남.

그림 7. 성별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직 비율 변화(2016~2021년)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9. 전공계열별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직 비중 변화(2016~2020)

(단위: %, %p)

구분 \ 연도	2016년(A)	2017년	2018년(B)	2019년	2020년(C)	차이(B-A)	차이(C-B)
인문계열	32.1	27.5	29.8	32.1	65.9	-2.3	36.1
사회계열	36.7	40.6	35.2	40.5	62.5	-1.5	27.3
공학계열	69.4	71.4	69.1	69.4	72.2	-0.3	3.1
자연계열	52.7	54.7	50.0	58.2	56.7	-2.7	6.7
의약계열	48.2	43.5	52.2	57.8	46.2	4.0	-6.0
교육계열	44.6	39.1	35.9	30.5	74.1	-8.7	38.2
예체능계열	24.3	27.9	31.5	42.5	67.6	7.2	36.1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0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고용형태) 학업전년 박사의 비정규직(파트타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직장병행 박사의 비정규직(파트타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학업전년 박사 중 비정규직(파트타임) 형태로 고용되고 있는 비율은 2016년 16.2%에서 2021년 5.9%로 크게 감소하였음.

- 반면 직장병행 박사의 경우에는 2016년 6.2%에서 2021년 10.6%로 증가하는 등, 학업전년 박사와는 역의 추세에 있음.

표 10.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 형태 변화(201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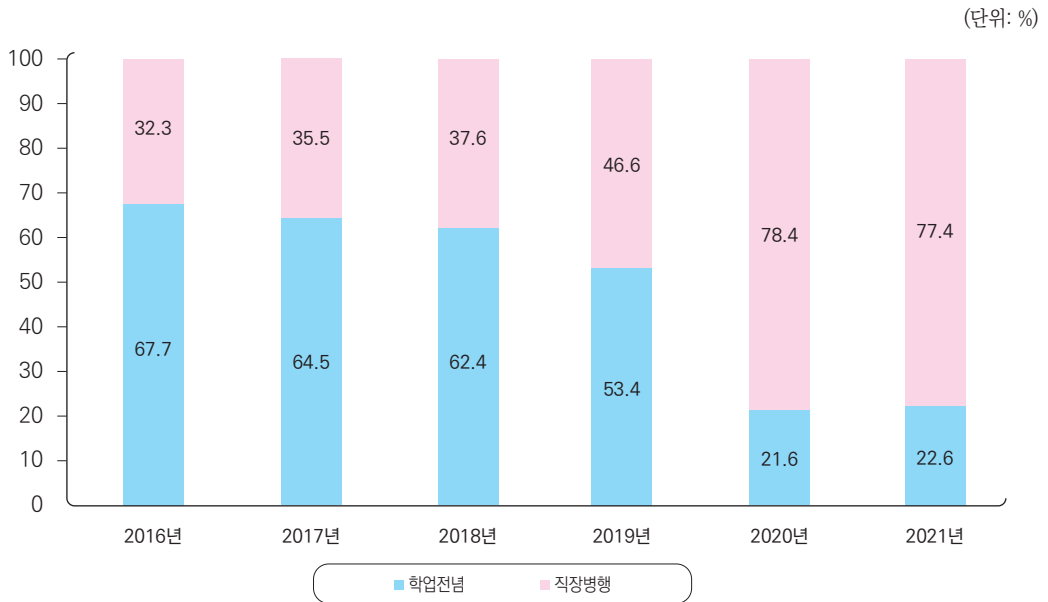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학업 전년	전체	2,406	2,611	2,551	2,385	1,834	2,367
	정규직	1,052 (43.7)	1,188 (45.5)	1,155 (45.3)	1,127 (47.3)	985 (53.7)	1,122 (47.4)
	비정규직(풀타임)	965 (40.1)	1,001 (38.3)	997 (39.1)	922 (38.7)	722 (39.4)	1,106 (46.7)
	비정규직(파트타임)	389 (16.2)	422 (16.2)	399 (15.6)	336 (14.1)	127 (6.9)	139 (5.9)
구분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장 병행	전체	2,983	3,212	3,004	3,378	4,447	4,495
	정규직	2,345 (78.6)	2,445 (76.1)	2,289 (76.2)	2,591 (76.7)	3,072 (69.1)	3,353 (74.6)
	비정규직(풀타임)	452 (15.2)	535 (16.7)	475 (15.8)	494 (14.6)	915 (20.6)	666 (14.8)
	비정규직(파트타임)	186 (6.2)	232 (7.2)	240 (8.0)	293 (8.7)	460 (10.3)	476 (10.6)

주: 괄호 안은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이며, 결측치(무응답)는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비정규직(파트타임) 중 학업전년 박사과 직장병행 박사 비중 변화(2016~2021년)



주: 무응답자 제외.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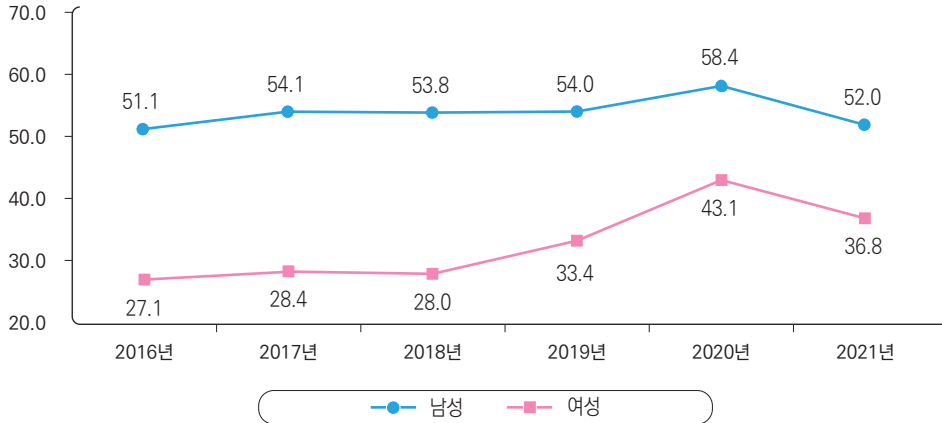
○ 학업전년자의 정규직 비율을 개인 특성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여 남성의 정규직 비율과의 차이를 줄이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업전년 박사의 정규직 비율이 증가함.

- 여성 학업전년 박사의 정규직 비율은 2018년 28.0%에서 2021년 36.8%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2018~2021년) 남성 학업전년 박사의 정규직 비율과의 차이는 2018년 25.8%p에서 2021년 15.2%p로 크게 감소하였음.

-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업전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정규직 비율 증가가 공학·자연계열 대비 더 크게 나타남.

그림 9. 성별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직 비중 변화(2016~2021년)

(단위: %)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1. 전공계열별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정규직 비중 변화(2016~2020년)

(단위: %, %p)

구분 \ 연도	2016년(A)	2017년	2018년(B)	2019년	2020년(C)	차이(B-A)	차이(C-B)
인문계열	19.5	21.1	20.6	23.1	52.0	1.1	31.4
사회계열	24.5	32.2	28.3	33.0	60.8	3.8	32.5
공학계열	60.8	61.3	61.1	61.4	62.1	0.3	1.0
자연계열	33.6	36.6	32.5	36.1	37.7	-1.1	5.2
의약계열	28.2	33.2	39.2	36.3	31.9	11.0	-7.3
교육계열	31.5	33.7	28.0	20.0	55.4	-3.5	27.4
예체능계열	23.4	20.4	26.9	42.4	62.9	3.5	36.0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IV. 요약 및 결론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의 수요는 타 직종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 및 국내 대학 졸업자 대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직장병행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도 50%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타 계열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30~34세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고 그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취득자 비율이 최근 증가하였음.
-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7개 권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청권에서 취득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업전념 박사의 진로확정 비율이 최근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인문·사회계열 학업전념 박사의 진로확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음.
- 2018년 이후 학업전념 박사의 상용직 비율 증가와 비임금근로자 비율 감소가 나타나며, 특히 여성과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학업전념 박사의 비정규직(파트타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직장병행 박사의 비정규직(파트타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이후 여성과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박사급 고급인력의 특성과 노동 시장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은 향후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성별, 전공계열, 직장병행 여부 등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2).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6~2021년). 「교육통계연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데이터(2016~2021년).